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미래 사회적 자본

-베이비붐 세대의 집단적 특성을 중심으로-

Social Capital for the Baby Boomer Generation in the Future
-Focused on Cohort Characteristics of the Baby Boomer Generation-

대전대학교 아동교육상담학과
교수 차성란*

Dept. of Child Education and Counseling, Daejeon Univ.
Professor Cha, Sung-Lan

〈목 차〉

- | | |
|-----------------|--------------------------|
| I. 서론 | IV.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 자본 |
| II.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 | V.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미래 사회적 자본 |
| III. 사회적 자본 | 참고문헌 |

〈Abstract〉

Baby boomers are often defined by their support of their parents and their devotion to their children's educational success by providing financial and emotional aids. Now, 7.12 million baby boomers in South Korea are retiring, or are about to retire, without any retirement plans. Similar to financial stability, health, and leisure life, social capital is another important element in the quality life after retirement. This is because social capital can function as a potential resource network. Social capital is a source that provides money, information, goods, services, emotional aids, social relational opportunities etc.

In the past, family and community provided social capital for the aged. However, the baby boomer generation cannot expect the same. The baby boomers have the task of creating new social capital that can assure their quality of lif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cohort characteristics of the baby boomer generation and, based on the examination, seeks an alternative for social capital.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ocial capital from the local community can be an alternative source of caring for the baby boomers in old age. Second, among the social capital of the local community, elderly care supported by a family friendly community is proposed. In

* 주저자, 교신저자: 차성란 (slcha@dju.kr)

addition, baby boomers must become the primary social capital that contributes to a mature civil society rather than a beneficiary of welfare for the aged.

Key Words : 베이비붐(baby-boom), 베이비부머(baby-boomer),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사회적 관계망(social network)

I. 서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노년기 생활에 대한 준비가 사회적 문제로 정부 및 학계의 관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 세대의 은퇴가 문제 되는 것은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가 2010년이면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고 그 숫자가 700만명을 넘는 대규모이기 때문이다. 노동부에 의하면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정년은 56.6세이며, 베이비부머의 출생년도 시작이라 할 수 있는 1955년생이 정년이 되는 2010년 후반을 전후로 대대적인 퇴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0년 현재, 시작된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은 수적인 증가가 더욱 가속화되어 앞으로 10년간 약 712만 명이 은퇴할 것으로 보여진다(통계청, 2010)

많은 수의 은퇴자가 직업영역에서 물러나 가계소득원이 사라지지만 이들은 개인적으로 경제적 준비를 하지 못한 ‘끼인 세대’이다. 노부모 부양을 해 온 세대이나 부모부양을 받지 못하며, 동시에 자녀양육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은 세대이기에 정작 자신의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준비나 계획은 하지 못한 것이다. 이들의 노후준비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면 매우 염려스러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개인적 수준에서 경제적 불안이나 심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미약한 사회보장제도 하에서 연금 등의 수입으로 은퇴 이후의 소득을 보전하기에 부족한 상황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남녀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008년

기준 남성이 60.2%인데 비해 여성은 39.8% 수준(www.seoulwomen.or.kr)이어서 여성 베이비부머의 노후생활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측된다.

개인 뿐 아니라 국가적 수준에서도 이들을 위한 경제적 준비에는 문제가 잠재되어 있다.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제도가 연금수급자의 증가로 장기적인 재정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완전히 은퇴하는 2025년에는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기 시작하고, 2026년에는 재정수지 적자로 전환, 2047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손민중·정호성·이민훈·박변순·박준·강성원·이은미·문외솔·이찬영, 2010).

게다가 평균수명은 세계 평균보다 증가율이 더 높아 은퇴후 노년기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www.kostat.go.kr) 자료에 의하면 베이비부머의 기대여명은 1955년생의 경우 남자가 24.27년, 여자 29.71년이며, 1963년생의 경우 남자 31.12년, 여자 37.23년에 이른다. 평균으로 보면 베이비부머의 기대여명은 27.26년에서 34.39년에 이른다. 은퇴 이후 약 30년 동안의 삶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30여년이라는 긴 노후기간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준비로 재정적 안정, 건강, 여가생활 등의 요인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자본은 다양한 종류의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적 자원망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노년기의 만족스런 생활에 빠질 수 없는 요소이다. 사회적 자본은 미시 수준에서 금전, 정보, 재화, 서비스, 정서

적지지, 사회활동기회 등의 자원을 제공하는 원천이다. 은퇴이후에는 직업생활의 중단으로 경제적 소득, 직업생활시간, 사회활동의 축소 및 변화가 이루어진다. 공식 영역에서 주변인이 되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대신하여 메꾸어 줄 비공식 영역에서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자본이 형성될 필요가 있게 된다.

전통사회에는 가족과 지역사회가 노인들에게 사회적 자본을 제공해주었지만, 이제 가족의 구조, 가치관, 사회구조 등이 크게 변하면서 베이비붐세대들은 과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을 더 이상 기대하지 못하게 되었다. 은퇴이후의 노년기는 사회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시기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은퇴기를 맞고 있는 현재에 와서 자신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해 줄 사회자본이 상당히 축소, 변화된 상태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자신들의 질적인 노후의 삶을 위해 부족한 노후준비를 보완해 줄 사회적 자본을 새롭게 만들어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베이비부머들의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그 해결의 단서를 베이비부머들의 코호트 특성에서 찾으려고 한다. 경제적 발전과 민주화는 거시적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에 의해 가능했던 산물로 간주된다. 즉 한 사회의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 발전 또는 민주화를 이루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는 요인으로 간주된다. 베이비붐 세대들은 1960년대 이후 우리 나라의 경제적 발전기의 중심에서 있었으며, 1980년대 민주화의 중심 세력으로 여겨진다. 베이비붐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양육환경을 구성했던 그 부모세대들의 사회적 자본 특성이 오늘날 우리 나라의 도약적인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루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거시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자본 형성의 배경은 미시적 수준에서 베이비부머 개인과 가족들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때문에 거시적 수준에서 역사를

경험과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을 이해함으로써 이들을 위한 미시 수준의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여러 대안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건강문제(선우덕, 2011), 노동력이나 일자리 창출(이성균, 2010; 김기현, 2011), 가계소비 또는 재정적 문제(허은정·임우성 2003; 이수옥, 2010; 우석진·이윤수, 2011), 복지수요(정경희, 2011; 김지경, 2010), 은퇴 대비를 위한 정책(방하남·신동균·이성균·한준·김지경·신인철, 2010; 나일주·임찬영·박소화, 2008; 이소정, 2011; 서지원, 2008) 등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가 부담해야 할 과제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많은 연구들이 있다.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노인들의 사회적 자본을 다룬 연구들은 지역사회 내 협력수준이나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이 주관적 건강상태, 고용, 소득 등의 변인과 함께 노인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임을 밝히고 있다(김범중·이홍직, 2005). 우울감과 같은 정신건강(노병일·모선희, 2007; 최미영, 2008; 이홍직, 2009)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은 신체적 건강(이혜자·성명옥·신윤아, 2003, 서지원, 2006)에도 영향을 미치며, 노년기 생활만족도(임우석, 2009; 손희성, 2011)를 높여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변화 속에서 사회적 자본은 양적, 질적 특성이 변화해버려 베이비붐 세대들이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은 빈약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을 파악하여, 미래의 사회적 자본 축적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단서를 찾아보고, 베이비붐 세대들이 개인과 사회 차원에서 사회적 자본 형성에 어떤 변화의 경험을 해 왔는지 검토하며, 이를 기초로 베이비붐 세대들의 미래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

1. 베이비붐 세대의 기준

통계청(2010)에 의하면 베이비부머는 55년부터 63년 출생자로서 총 인구의 14.58%를 차지하는 712만명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 베이비부머 또는 베이비붐 세대를 규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잣대는 시기적으로 구분되는 높은 출산율과 해당 기간의 두 가지이다. 우리나라에서 1차 베이비붐 세대를 탄생시키는 사건은 한국 전쟁으로써 김영민(2006)은 휴전이 성립된 1953년 다음 해인 1954년부터 1961년까지의 기간을 베이비붐 시기로 보았다. 그리고 권현정(2008)은 좀 더 길게 1954년부터 1968년까지를 베이비붐 시기로 보고 있다. 방하남 외(2010)는 전후 출산율이 급증했다는 점에서 1955년을 베이비붐 세대의 시작년도로 보고, 산아제한정책의 도입으로 출산율이 크게 낮아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1955년부터 1963년까지를 베이비붐 시기로 보았다. 하지만 출산율은 63년 이후 1970년대 중반까지 4.3% - 4.7% 사이의 여전히 높은 출산율을 유지해 왔으며, 55년부터 63년까지 9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의 출생자들을 동일 코호트로 간주하여 공통된 특성을 도출해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질을 극대화시키려고 할 때, 이들 집단이 경험한 공통된 특징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규정은 출산율과 함께, 전쟁이후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이어지는 시작단계에서 출생하여,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경제발전과 민주화라는 사회적, 역사적 경험을 공유해 온 집단이라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즉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부터 1963년도 사이에 출생한 집단을 베이비붐 세대로 규정하되 이는 객관적,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기보다는 정책, 역사,

사회적 인식 등이 복합된 임의적으로 규정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2. 베이비붐 세대의 집단적 정체성

베이비붐 세대는 흔히 끼인 세대라는 별칭으로 불리운다. 베이비부머들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것이 그들의 준비되지 않은 노후이기에 끼인 세대는 노후준비의 관점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효’라는 전통적 가치를 부모로부터 보고 배운 세대로서 노부모 부양 의식을 지니고 있으며, 또 실천해 왔다. 자녀교육은 물론 결혼준비를 위한 경제적 지원까지도 서슴치 않고 해 왔던 세대이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세대이다. 주고도 받지 못하는 끼인 세대의 특성은 단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모 부양의식의 변화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양은 개인과 가족단위 수준의 문제이나 부양의식의 변화는 한 사회에서 벌어지는 역사적 사건, 경제적 환경, 과학의 발전, 외국과의 문화교류 등 좀 더 근본적인 광역 환경 요소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달라지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탁석산(2006)은 베이비부머라 할 수 있는 50대의 특성을 ‘중간 세대’로 규정하였다. 유년기의 빈곤과 성인기의 물질적 풍요, 반공 체제 하에서의 성장과 오늘날의 반미 시대적 분위기, 전통사회의 공동체적 삶과 현대의 이기적 개인주의 등을 모두 경험한 세대라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사회적 환경이 구성원들의 삶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입장에서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

첫째, 베이비붐 세대는 빈곤과 풍요를 모두 경험한 ‘중간 세대’이다. 6.25 전쟁이 휴전되고 난 1955년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65달러에 불과했다. 1960년대 중반까지 별다른 증가가 없었으며 1970년에 254달러, 1975년 602달러, 1980년 1,645달러 등으로 급속히 증가했다. 1995

년에야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넘어섰고, 2007년 다시 2만 달러를 넘었다. 베이비부머들의 어린 시절은 식량과 생필품이 부족하여 도시락을 싸가지 못했던 경험, 식량부족으로 잡곡도시락을 확인한 후에야 점심을 먹을 수 있었던 경험이 있다(송양민, 2010). 그러나 1982년 7조원이던 외식 산업 규모는 2004년 기준 42조원에 이르러 연평균 8.9%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가계의 식료품비 지출 중 외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2년에 6%에서 2005년 46.4%로 약 7.7배 가량 증가했다(김수립, 2007). 19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후반까지 우리나라 제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던 근로자 집단으로서 ‘부지런히 일하는 생산자’의 삶을 살았다. 이들이 이제 1980년대 중후반 결혼적령기를 맞으면서 늘어난 소득으로 값비싼 내구소비재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대량 소비자’로서 전환적 삶을 살게 된다(송양민, 2010). 빈곤과 풍요의 경험은 일에 대한 가치가 변화하는 경험과도 연관된다. 6.25 전쟁이후 가난한 나라였던 우리는 국가와 개인 모두 빈곤을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을 함께 공유할 수 밖에 없었다. 정부는 ‘자립경제 달성’을 목표로 1962년부터 5년 단위의 경제개발계획을 7차에 걸쳐 추진해 왔으며, 개인들은 경제발전의 주역으로 공장노동력을 충당해왔다. 베이비붐 세대들은 그 시대의 공돌이, 공순이 세대이며, 일에 대한 몰입, 근면함, 노작(勞作)을 긍정적 가치로 내면화해낸 집단이다. 직장에서의 일을 우선시하는 일과 삶의 불균형을 감내한 세대(삼성경제연구소, 2010), 가족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평생을 일벌레로 살아온 세대인 것이다.

그러나 풍요로운 성장기를 보낸 젊은 층들이 일에 대해 갖는 가치는 이와 다르다. 일을 통해 소득을 얻고,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 시간적 자유에 더 높은 가치를 두는 젊은이들은 일을 절대적 가치로 보지 않는다. 노작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며, 피할 수 있다면 피해 가기를 원한다. 한

조사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대학생들은 본인의 성격과 흥미 분야를 이해하고 있으며, 직업을 갖기 보다는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고 싶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경석, 2010). 은퇴를 전후로 하고 있는 오늘의 베이비붐 세대는 양 세대를 아우르며 일에 대한 긍정적 가치, 그리고 개인적 여가나 독립적 의사결정도 지향하는 자유시간에 대한 긍정적 가치 모두를 접하고 있다.

둘째, 베이비붐 세대는 전통적 가족가치와 근대적 개인주의 가치를 모두 경험한 ‘중간 세대’이다. 베이비부머들은 1970년대에 부모들로부터 전통적 가치를 보고 배우는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하였다. 2002년 사회통계조사 결과에 의하면 노부모 부양을 가족이 해야 한다는 응답이 70.7%였으나 98년에는 89.9%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09년 조사에 의하면 베이비붐 세대의 99.1%가 자녀의 대학교육비는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베이비붐 세대의 부모 중 약 70%는 여전히 생활비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후에 대한 준비는 약 80%가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그 방법은 국민연금에 제일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전찬호, 2011). 베이비붐 세대에게 전통적 가족가치로서 ‘효’ 의식은 여전히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베이비부머들은 개인보다 가족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가족중심주의 가치가 기본 축을 이루는 사회 속에서 자라왔다(최재석, 2009).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는 개인중심주의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해왔다. 개인보다는 가족, 가문과 같은 집단의 이익이 중시되는 가족중심주의 가치로부터 가족이나 지역사회와는 개별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이나 목적이 집단의 이익에 우선하는 사회로 전환된 것이다.

전통과 근대의 가치는 공동체 영역에서도 해당된다. 탁석산(2006)은 대한민국 50대들이 “어린

시절부터 매우 탄탄한 공동체 속에서 자라났으며, 집안에서부터 공동체 살아가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베이비부머들은 이사를 오면 동네 이웃에게 떡을 돌리며 인사를 하거나 이웃끼리 가재도구를 빌려주고 빌려쓰며, 골목길 평상에서 이웃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삶을 경험했다.

그러나 현대사회가 아파트라는 대표적 주택유형으로 바뀌면서 베이비부머들이 경험했던 지역 사회 단위의 공동체 생활은 파괴되어 버렸다. 대내외적으로 한국의 건설상을 과시하며 토지이용률을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1962년 마포아파트가 건립되기 시작한 이래, 60-70년대 동부이촌동, 여의도, 반포 지역 대단위 아파트 단지시대를 거쳐(손정목, 2004) 이제 총 주택수 중 아파트가 절반이 넘는 53.04%(통계청, 2005)를 차지하고 있다. 아파트 생활의 주요 특징으로 꼽는 익명성은 특히 도시 가족들의 지역사회에 기반한 공동체 생활의 붕괴를 가져왔다.

셋째, 베이비붐 세대는 민주화의 전, 후를 경험한 ‘중간 세대’이다. 1960년 4.19 혁명, 1961년도의 5.16 군사쿠데타, 1972년도 10월 유신과 긴급조치 등은 민주화 이전시대의 경험으로 베이비부머들에게 기억된다. 경제개발 세대가 민주화의 씨를 뿌렸다면 베이비붐 세대는 그 불꽃을 피운 세대로 여겨진다. 전쟁을 겪으며 생존의 위협을 느꼈던 해방동이 세대들과는 달리 의식주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베이비붐 세대들은 경제적 풍요보다는 민주주의를 원했다. 베이비부머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하는 1980년에는 5월 광주 민주화운동이 있었고, 1987년도에는 6월 민주항쟁이 있었다. 6월 민주항쟁에서 ‘넥타이 부대’로 지칭되는 이들은 바로 베이비붐 세대이다(송양민, 2010).

넷째, 베이비붐 세대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생활방식 모두를 경험한 ‘중간 세대’이다. 최두진·류영달·양희인(2011)의 자료에 의하면 1980년대 이전을 정보화 개화기, 1980년대를 정보화 도약

기, 1990년대 정보화 확산기, 2000년대 정보화 성숙기로 구분한다. 인터넷 상용 서비스가 개시된 것이 1994년도이며, 인터넷 이용자수 1000만 명 돌파한 것이 1999년도이다. 1955년생을 기준으로 보면 정보화 도약기는 베이비붐 세대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와 맞물린다. 즉 베이비붐 세대들은 학창시절까지 아날로그식 생활을 했다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디지털 생활양식을 맞게 된 것이다. 50세 이상에 해당되는 베이비부머들은 정보검색이나 회원가입, 인터넷 글쓰기, 이메일 교류 등과 같은 정보이용, 생산 및 교류 능력은 40대 이하에 비해 낮지 않으나 소프트웨어 설치 및 실행, 사진 및 동영상 올리기, 블로그운영, 메신저 이용 등의 능력은 9세 이하 집단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업무나 여가와 관련된 정보수집은 다른 연령대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온라인 상에서 사람들과의 교제, 영화/음악/드라마 감상등과 같은 여가 생활은 6-9세 집단보다 약간 높은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의 여론조사, 사회이슈 및 정책토론, 온라인 기부 등과 같은 활동도 10대 이하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최두진 외, 2011). 요약하면 50대들은 온라인 상에서 정보수집과 같은 디지털 생활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동시에 온라인 상에서도 예의를 갖추려하고, 사회자본 형성의 잠재력이라 할 수 있는 온라인상에서 사람들과의 교제, 여가생활, 사회참여활동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아날로그식 생활양식에도 익숙해 있다.

III.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 개념의 생성은 신경경제학적 관점이 사회학의 관심인 사회적 관계에 접목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슐츠, 베커 등의 신경경제학자들이 인간관계라는 비경제학적 주제에 인적 자본

(human capital) 개념을 적용한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부르디외가 비슷한 시기에 문화적 자본(cultural capital)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인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 개념이 바탕에 깔고 있는 의도는 유사하다. 시장경제에서 교환되는 재화나 서비스는 아니지만 효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 특성, 인간의 문화예술적 특성과 같은 비물질적 요소들을 생산 자본으로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사회적 자본 역시 시장영역 밖에서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다양한 효용성에 대해 시장경제의 생산요소인 자본의 개념으로 접근한 것이다(김상준, 2004).

사회적 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은 가족, 이웃, 직장 등 매우 다양하며, 결과로서 얻을 수 있는 효용성의 정도나,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긍정적, 부정적 기능 등도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이 갖는 포괄적 특성은 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관점에서도 많은 차이를 갖게 한다. 사회적 자본 연구에서 개념화와 측정(measurement)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이다.

사회적 자본 연구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부르디외는 사회적 자본을 ‘상호 면식과 인정이 제도화되고, 지속화된 관계망, 즉 특정 집단에의 소속원이 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 자원의 총합’(Bourdieu, 1986)으로 정의하였다. 그는 자본이 갖는 가치증식, 그리고 증식된 가치가 순환됨으로써 계급불평등을 만들어낸다는 마르크스적 관점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사회적 자본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으로 접근하였다. 그는 자본의 개념을 경제제 외에 교육제, 문화제, 사회제, 정치제 등으로 확장시켰다. 부르디외가 보는 문화적 자본은 문화, 교양, 취향 등 개인이 지닌 인적 특성의 일부로서 문화적 역량을 일컫는다. 부모세대가 지닌 문화적 자본은 자녀세대에게로 전이됨으로써 계급재생산에 기여한다고 본다. 사회적 자본 역시 계급재생산의 기제로 작

용한다고 본다. 부모세대는 특정 집단에의 소속원이 됨으로써 다양한 인적, 물질 자원을 동원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자녀세대가 기존의 계급적 지위를 유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콜만은 사회적 자본을 생산적인 사회적 관계망(productive social network)(Coleman, 1990)이라는 기능적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접근한다. 사람들은 효용을 최대화하려는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행동을 하는데, 사회적 관계에 의한 생산성, 즉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용성이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적 자본 형성에 참여하도록 동기부여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의 요소로서 ‘신뢰’를 예로 설명한다면, 신뢰란 불확실한(risk) 상황에서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말한다((Coleman, 1990, 김상준, 2004에서 재인용). Coleman은 사람들이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손실보다는 이득을 얻을 확률이 크다고 여기기에 사회적 관계망에 참여하여 소속원이 되려하고, 그것이 한 사회의 사회적 자본으로 축적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회적 자본은 미국 내 보수적 가족가치, 공동체 정신이 퇴조하고 있는 미국사회에서 도덕적 결속력을 강화시키는데 중요하다고 보았다.

한편 Putnam(1993)은 사회적 자본을 “협력된 행동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을 개선시켜주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적 조직의 요소들”이라 정의하였다. 부르디외가 계급재생산, 콜만이 개인의 이익추구 동기에 관심을 가졌다면 푸트남은 사회적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에 접근한 것이다. 그는 ‘민주주의(Democracy)’라는 책에서 북부와 남부 이탈리아 지역을 구분해 놓고, 사회적 자본의 수준과 민주 제도 성공과의 정적 관계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사회적 자본을 정치적 영역으로 확대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사회적 자본의 부분-정치참여적 사회자본-을 그것이 사회적 자본의 전체인

양(김상준, 2004)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한다.

사회적 자본의 개념은 가족자원경영학 영역에서도 다양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그동안 가족자원경영학에서는 사회적 자본 개념보다는 사회적 지지, 사회관계망, 대인적 자원(inter-personal resource) 등의 개념들을 사용해 왔다. 가족자원경영학에 사회적 자본 개념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논의가 근자에 와서 이루어지고 있다. 가정내 사회적 자본(김경식·이현철, 2008), 가족사회자본(family social capital)(Israel et. al., 2001), 사회자본으로서의 가족자원(서지원, 2006) 등을 다루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사회적 자본 개념이 가족자원경영학에서 명확히 정의되거나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란의 여지가 있는 개념들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자본은 경제학 용어이다. 사전적 의미에서 자본은 “상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생산 수단이나 노동력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며, 자원은 “인간 생활 및 경제생산에 이용되는 원료”(국립국어원, 1999)를 일컫는다. 자본과 자원 모두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하지만 자원은 생산 활동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구체화된 단계의 생산 요소라면 이에 비해 자본은 자원보다 상위의 개념으로서 보다 구체성이 낮다. 가정을 체계로 접근하는 가족자원경영학에서 볼 때 자원은 투입-과정-산출의 관리과정에서 가족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투입되는 요소이다. 그리고 그 종류에는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이 있다.

가정을 사회적 자본으로 인정한다면, 가정은 “개인과 사회의 요구를 가정이 지닌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중재해 주는 매개고리 역할을 수행”(서지원, 2006)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본은 다양한 자원을 연결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원을 이끌어내고 창출해 내는 원천으로 간주할 수 있다. 자본과 자원을 잠재적

자원 창출 원천 그리고 창출된 구체적 자원으로 개념화하면, 사회적 자본은 도구적 자원, 정서적 자원, 정보 자원 등의 자원을 창출할 수 있으며, 사회적 관계망은 신뢰, 규범 등과 함께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로서 자원획득을 기대할 수 있는 자원 흐름의 망이라 할 수 있다.

가정은 사회적 자본 이론가들은 가족체계가 일반적 수준에서 볼 때 그 자체로서 사회적 자본(Teachman et. al., 1997)이라 하였다. 가정이 자본일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유형의 자원을 창출해 내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원의 효용성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사회적 자본일 수 있는 것은 가정은 브르디외가 말하는 ‘지속화된 관계망’이며, ‘특정 집단에의 소속원이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자원의 합이기 때문이다. 가정이라는 제도 하에 가족구성원들은 영속적인 관계망에 관여되며, 특정 가정에 가족원이기에 요구되는 다양한 자원들을 획득할 수 있다.

가정의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 연구로서 가정환경이 자녀의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들이 있다. 박현진·김영화(2010)의 연구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영어학업성취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빈곤학생과 비빈곤학생을 비교한 김현숙(2011)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사회자본 중 형제자매수라는 가족배경이 빈곤학생의 학업성취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교육적 관심, 대화, 학교교육활동참여는 비빈곤 학생의 학업성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다.

가정환경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지위는 사회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자본은 자녀돌봄이나 노부모돌봄과 같은 가족돌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유추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당면한 문제인 노년기 생

활보장은 가정의 사회적 자본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다. 가정의 사회적 자본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이어지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이다. 가족이라는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를 통해 가족이라는 구성원이 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돌봄이 변화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하지만 가족 사회자본은 지역사회나 직장, 단체에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사회자본과 차이가 있다. 일반적 사회자본의 경우는 예를 들면 Coleman (1990)이 주장하는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가정은 혈연을 근거로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며, 가정이라는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잠재적 자원의 총합이다. 즉 선택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부여된’, ‘당연한’ 관계로서 사회적 관계망에 포함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소유한다는 점이다.

가족환경 요인들은 그 영향력이 가족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 전반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이러한 특성은 사회자본으로서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한다. 사회자본인 가족이 사회적으로 의미를 갖게 되는 통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자본의 기초적 형성 장소이다. 가정은 어린 자녀를 비롯하여 가족구성원들에게 1차적인 사회화의 장소이다. 가족사회자본은 공동체 의식, 법, 정치, 역할의식 등 규범 의식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힌 박희봉·이희창·전지용(2008)의 연구가 실례를 보여주고 있다. 규범, 신뢰, 상호호혜는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이며, 가족원들은 가정에서 가정교육이나 가족관계, 또는 가정생활에서 가족과 다른 외부 집단과의 관계를 학습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가족원들은 규범, 신뢰, 호혜성을 경험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여 자신의 규범과 신뢰, 호혜성에 대한 기준을 세워나간다. 둘째, 사회전반의 사회자본이 가족을 통해 전파된다. 사회자본을 가정, 지역사회, 국가의 위계적 수준으로 파악한다면 가

정환경에서 습득된 개별 가족구성원들의 규범, 신뢰, 호혜성 수준은 당연히 지역사회, 국가 수준의 사회자본 형성의 출발점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가족수준에서의 사회자본이 지역사회 및 국가의 사회자본 수준으로 직결되지는 않지만, 가족수준의 사회자본은 사회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보다 상위수준의 사회자본 형성에 기여한다. 이를 보여주는 사례로 Bubolz(2001)의 연구가 있다. 그는 새로 이사해 온 세 가족을 대상으로 심층 연구한 결과 지역사회 수준의 사회적 자본을 공식적(formal)-비공식적(informal)인 체계로 파악하였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하부구조(infra structure)로서 가족이 사회자본을 형성하는데 사용하는 상호의존적 체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가족사회자본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는 것이 직장이나 지역사회 등 외부체제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Wright, Gullen & Miller (2001)는 가족 사회자본이 자녀가 공동생활에 필요한 집단가치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기능에 있어 가족사회자본과 지역사회 수준의 상호 영향력을 검증해주고 있다.

가정은 자체가 사회적 자본으로 기능하기도 하지만 사회적 자본이 형성될 수 있는 영역이나 수준은 매우 다양해서, 가족, 친척, 지역사회 주민, 직장 내 구성원, 시장의 경제활동 주체 사이에서 형성될 수 있다. 현대 가족에서 나타나는 가족기능의 축소, 약화 등은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가정역할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더불어 자녀양육이나 노인돌봄의 문제를 가정과 사회가 분담하려는 가족기능의 사회화가 이루어지면서 지역사회 수준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건강한 가정의 구성요소로서 경제적 안정,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합리적 자원 관리, 자녀의 성장발달지원, 건강한 가정생활문화 등과 함께 건강한 시민의식, 자원봉사활동, 지역

사회 활동 참여 등(조희금·김경신·정민자·송혜림·이승미·성미애·이현아, 2006) 가족과 사회와의 관계가 강조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가족기능이 곧 가족사회자본은 아니다. 가족기능 중 돌봄기능은 앞서 언급한대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사회자본이 축소되면서 그 영향으로 기능의 약화가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약화된 가족기능, 거슬러 올라가 약화된 가족사회자본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지역사회 수준의 사회적 자본 강화로 논의가 이전되면, 사회적 자본은 가족자원경영학에서 주로 다루던 사회적 관계망 그 이상을 요구한다. 지역주민들이 인적 서비스,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려하고, 지역사회 화합과 결속을 다지려는 노력에 의해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기 때문이다(Israel et. al., 2001).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이 높아지면 시민들의 사회참여, 상호협력적 활동(patterns of mutual support)(Putnam, 1993), 또는 다자간 자원교환이 이루어지는 일반적 호혜성이 작용한다. 그래서 이를 ‘시민적 자본(civic capital)’(이재혁, 2007)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역사회 수준 이상의 사회적 자본은 공공재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공급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Coleman(1988)은 공동체와 같은 사회적 자본에 대한 집중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IV.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 자본

앞서 베이비붐 세대의 중간적 특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베이비붐 세대는 빈곤과 풍요, 가족주의와 개인적 이기주의, 지역사회 공동체의 경험과 지역사회 해체,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경험을 모두 경험한 세대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형성에 기여하고 또 활용할 수 있었던 사회적 자본에 대해 가족-지역사회-국가의 위계수준을 기준으로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베이비붐

세대만이 향유하거나 기여한 사회적 자본을 구분해내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이들이 성장하고 사회생활의 주역으로 활동했던 기간을 주관적 판단으로 설정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자신의 경험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1960년대 이후부터 가족과 사회환경의 두드러진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1990년대 전후를 대략적인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첫째, 베이비붐 세대는 가족의 돌봄기능과 자녀교육기능과 관련하여 높은 가족사회자본을 소유했었다. 그러나 베이비붐 이후 젊은 세대들은 가족사회자본을 축소시키고 있으며, 오히려 베이비붐 세대에게 가족사회자본의 증가를 강요하고 있다. 가족은 자녀 양육과 노부모 부양과 같은 돌봄기능을 통해 이미 오래전부터 가족복지기능을 수행해왔다. 베이비붐 세대의 어머니들은 개인적 자아성취 대신 자녀양육을 택해 직장을 포기하였다. 여성들의 취업경력이 M 자형을 나타내는 이유이다. 자녀교육을 위한 투자로 자신들의 노후 경제적 준비를 미처 하지 못한 세대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맞고 있는 지금, 자녀 돌봄은 시장서비스로 이전되거나 베이비붐 세대인 조부모가 손자녀의 양육을 담당함으로써 가족사회자본을 지켜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는 미혼 성인자녀의 만혼, 교육기간 증가, 청년 실업 등을 이유로 자녀돌봄기간을 연장시키고 있다. 하지만 자신들의 노후생활을 가족사회자본에 의존할 수 없는 정도가 높아져 스스로 사회자본을 강화시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베이비붐 세대는 지역사회 내에서 경제적, 교육적, 정서적, 문화적 자원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을 지니고 있었다.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은 사라지고 여기에 온라인 커뮤니티가 대체되었다. 금융시장이 제도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던 당시에는 다양한 목적의 계가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결성되고 활용되었다. 또한 지역주민, 직장 동료, 친척들이 모여 친목을 목적으로 결성하는 계

는 여가시설이나 프로그램의 부족을 보완해 줄 수 있었다. 농한기 관광, 여름철 친척 등은 대부분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지역사회는 베이비붐 세대들의 어린 시절 놀이터이자 공동보육과 교육의 장으로 기능했다. 변변한 놀이터가 없던 동네에서 골목은 친구들과의 일상적 놀이터로 기능했다. 놀이과정에서 친구들과의 역동적인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해나가며 호혜성과 규범을 익힐 수 있었다. 골목이나 마을정자들은 어른들의 만남 기회를 제공하고, 이웃끼리 언제라도 동네 아이들을 서로 돌보아 줄 수 있는 공동보육의 장이었다. 어른들은 동네 아이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공중예절을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한다. 가족사회자본과 함께 지역의 사회적 자본이 학업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연구들(Israel et al., 2001)이 그 증거가 되고 있다.

지역사회 내 이웃주민과의 교류는 상호부조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었다. 회갑이나 돌, 혼례와 상례는 농촌지역일수록 한 동네 전체의 잔치이자 가족행사로 치루어졌다. 새로 이사온 경우, 이웃들에게 떡을 돌리는 관행은 이같은 지역사회 상호부조의 관계망에 새로 편입되고자 하는 메시지의 표현인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영위되는 다양한 세시풍속을 통해 생활문화의 유지,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한다. 예를 들면 정월 대보름 세시풍속 중 하나로 오곡밥 나눠먹기는 이웃주민들과의 사회관계망 속에서 호혜성에 의한 교환활동이다. 집집마다 치루는 음력 10월 상달 고사를 지내고 나면, 이웃집에 고사떡을 돌리는 일을 베이비붐 세대라면 대부분 경험했을 것이다. 마을 전체로 진행되는 동제(洞祭)도 그 중 한 사례이다. 이 같은 지역 단위 생활문화는 마을주민을 하나로 묶는 결속 사회 자본으로서 기능한다.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은 마을과 마을을 연결짓는 교량적 사회 자본으로서 기능도 수행할 수 있었다. 윗동네, 아랫동네 사이의 마을축제는 두개의 사회관계망을

연결짓는 교량적 사회적 자본이 기능하는 사례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망을 토대로 하는 호혜적 생활문화, 상호부조적 관행, 아동교육환경으로서의 역할은 축소, 소멸되고 이 자리를 온라인 커뮤니티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의사소통이 대신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시간 의사소통 방법으로서 메신저나, 휴대폰은 가족을 매개로 한 이웃주민과 지역 사회 내 오프라인 활동을 대체하고 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가 아니라 온라인 동호회가 활성화된 상태이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모두 경험한 세대이나 노년기에 접어드는 베이비부머들이 젊은 층이 중심을 이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중심적 자리를 차지하기란 힘든 일이다.

셋째, 베이비붐 세대는 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발전을 이루게 한 사회적 자본 형성의 주역이었다. 사회적 자본은 “호혜성에 바탕을 둔 신뢰, 규범 또는 네트워크로 구성된 협력적 행위를 촉진시켜 사회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직의 속성을 총칭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사회적 자본은 효율성 높은 사회조직을 가능케 하기에 사회의 정치경제적 발전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급속한 경제적 발전을 두고 사회조직의 생산성 향상, 즉 사회적 자본의 축적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농촌인구의 노동유입, 높은 교육열, 미래의 이익을 위해 현재의 욕구충족을 미루는 근검가치와 높은 저축률 등 아시아적 가치(Krugman, 1994)에 의한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신뢰’가 제 3의 성장동력으로 국가경제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한 후쿠야마(Fukuyama, 1999)의 주장이 1997년 외환위기로 경제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류석춘·최우영·왕혜숙(2005)은 유교적 ‘효’ 윤리가 사회적 자본으로서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끈 주된 동력이 되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다. 가족주의를 따르는 우리는 가족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인 ‘효’의 관습을 가지고 있으며, 효의 실행 방법으로서

발전적 재현, 계승적 재현, 집합적 재현을 이루고자 노력한다. 발전적 재현을 위해 후손들은 선조가 이루어낸 사회적 지위, 문화적 위세, 그리고 강력한 지표로서 ‘부’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효’를 실천하기 위해서 가족원들은 근면과 성실로 열심히 일해 왔고, 사회의 개별 구성원들의 이러한 노력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적 발전을 이룩해낸 근본적인 원동력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계승적 재현은 ‘자녀’를 통해 선조의 업적을 재현하는 것으로서 자녀가 높은 사회경제적 성취를 하게 하려면, 자녀의 교육적 성취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부모는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다. 이 역시 우리 사회의 경제적 발전을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집합적 재현은 가문의 범위 내에서 형제자매 모두가 재현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다. 책임을 공유하는 형제자매들이 모두 높은 사회경제적 성취를 하기 위해 형제자매, 나아가 친척들 사이에 서로 돕는 상호부조가 이루어진다. 이상에서 우리의 전통적 가족가치로서 ‘효’는 가족에게 사회경제적 성공이라는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며, 친척간 상호부조라는 사회적 자원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수준에서 사회적 자본의 또 다른 기여는 민주화에 있다. 사회적 자본은 상호신뢰와 협력의 기제를 만들어냄으로써 시민적 덕성과 규범을 강화하는 선순환 효과가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폭과 넓이를 확장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Coleman, 1990; Norris, 2002). 하지만 김상준(2004)은 한 사회의 사회적 자본 수준을 곧 그 사회의 정치경제적 성공 수준으로 간주하는 푸트남의 사회적 자본 측정 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측정지표로 제시되는 신문구독률 경우, 많은 종류의 신문, 잡지를 구독한다 해도 사회적 관계없이 홀로 지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타인이나 제도에 대한 신뢰’ 지표상 점수가 낮아도, 사회를 개혁하는 시민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구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측정되는 시민사회의 사회적 자본 측정기준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화 정도를 파악하는 데는 좀 더 관련 분야의 연구 성과가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토크빌(Tocqueville, 1984)은 미국이 시민사회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 자발적, 수평적인 다양한 사회단체가 민주적 규범, 신뢰, 협동에 앞장섰기 때문으로 본다. 시민사회의 단체참여 활동은 상호작용의 규범, 의사소통과 네트워크 조정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자본을 형성, 발전시키기 때문이다(Putnam, 1993). 서구사회에서 사회단체는 자발성, 수평적이며, 사회단체 구성원의 관계가 공식적, 이차적 관계에 근거를 둔다. 그러나 우리는 수직적 사회단체가 보다 활성화되어 있고, 이미 가족이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기에 자발적인 단체는 미약하다. 한 조사에 의하면 335명 응답자 중 친목회(179명), 동창회(148명), 종교단체(97명) 가입자에 비해 이익집단(26명), 시민단체(25명) 참여자는 저조하다(성도경·박희봉·장철영, 2004).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는 혁명, 의거, 학생 및 일반 시민의 항쟁과 데모의 역사적 사건들을 경험해 왔다는 점에서 민주화 역사의 중심에서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V. 베이비부머를 위한 미래 사회적 자본

노년기에 접어드는 베이비붐 세대에게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 지지, 정서적 지지를 가능케하는 중요한 대안적 자원임에 분명하다. 가족, 지역사회 주민, 직장동료 등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다양한 공식, 비공식의 사회적 자본이 창출된다. 이 중에서도 가족 사회자본은 강한 연대를 유지하면서 자녀와 노부모, 장애자 등의 가족을 지원해왔

다. 하지만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은 더이상 가족 사회자본에만 의존할 수 없는 현실에 부딪히고 있다. 첫째, 생활공동체로서 가족의 가치와 기능이 약화되고 가족원들 안에서도 개인주의가 점점 더 강화되어가고 있다. 둘째, 평균수명의 연장은 비경제적활동기의 노부모 부양을 가족기능에만 떠맡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베이비부머를 위한 미래의 사회적 자본을 다루는 목적은 은퇴기에 접어든 이들의 노후의 삶을 질적으로 유지하는데 있다.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방법은 공적, 사적인 영역 모두에서 가능할 것이다. 공적 영역에서 가능한 방법으로는 사회적 자원 창출에 효과적인 공간, 시설, 프로그램,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712만명이라는 베이비부머의 집중적인 은퇴를 맞아 이들의 사회적 자본 확충을 공적 영역에서 대처하기란 현 상태에서는 무리가 있다.

베이비부머들은 지난 수십년간 경제활동에 주체로서 국가발전을 이끌어 왔고, 노부모 부양을 여전히 수행하면서 자녀교육에 인적, 물적 자원을 몰입시켜온 사회적 역할을 당당히 수행해 온 세대들이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노후생활을 지탱할 경제적, 정서적 자원의 공백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베이비붐 세대들은 대안적인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라는 또 다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자본을 개인 수준에서의 효과와 집단 내지 사회적 수준에서의 효과로 구분하여 전자를 관계적 자본, 후자를 시민적 자본이라 한다면, 관계적 자본은 도구주의적 측면에서 보는 사회적 자본으로 “주위의 자원을 자신의 이해관계에 맞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가의 정도”를 말한다. 이에 비해 시민적 자본은 거시적 관점에서 “경제성장이나 정치적 민주화 등과 관련된 공공재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자본”을 일컫는다(이재혁, 2008). 가족이라는 개인적 수준의 사회적 자본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

서, 그리고 보다 성숙한 시민사회로의 발전을 위해 시민적 자본을 더욱 확대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수적 다수이므로 “기존 질서와 가치관, 사회시스템에 부담을 주는 동시에 이를 전환 내지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는 임계적 다수(critical mass)”라 불린다(전찬호, 2011). 또한 탁석산(2006)은 50대 전후인 베이비붐 세대는 권위주의가 지배하는 집단문화와 이기적인 개인주의 양쪽 모두를 경험한 세대로서 할 일이 있고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베이비붐 세대가 감당해야 할 대안적인 사회적 자본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베이비부머의 부족한 노후준비는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지역 사회 차원에서 비공식적인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역사회 공동체를 통한 사회적 자본 공유이다. 탁석산은 베이비부머에 해당하는 50대의 힘을 주장하며, ‘새로운 공동체’를 제안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세계 국가들이 시장과 민주주의라는 현대 사회의 두 축으로 인해 연대의식은 사라지고 무기력한 개인주의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미래 사회에는 과거 학연, 혈연, 지연에 의한 사회적 자본, 즉 개인과 가족의 이익을 위해 움직여왔던 구시대 공동체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해 작용하지만 전체주의가 아닌 개인이 존중되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가 직접 인용한 프랑스의 석학 자크 아탈리는 같은 맥락에서 ‘시장상품에 의한 비인간화’를 넘어서고,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위한 공동 책임과 지식의 공유를 통해 ‘인간적인 길’(자크 아탈리, 탁석산, 2006에서 재인용)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거 가족들이 생활공동체로서 가족원들의 생명과 삶을 공동으로 책임졌다면, 이제 그 범위를 넓혀 적어도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구성원들의 인간적인 삶에 대한 공동의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인간의 생계(경제 통합)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로 구분할 때, 시장경제에 의한 교환, 국가의 제도 하에서 이루어지는 재분배, 그리고 공동체에 의한 호혜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시장경제는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객관적이지만 엄격한 기준에 의해 작동된다. 이에 비해 호혜성은 연령, 계급 등과 관계없이 호혜성의 대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경제적 통합 방식이다(류석춘·왕혜숙, 2008). 다만 호혜성에 의한 교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이 그것을 가능케 하는 가치와 태도를 지녀야 하며, 행동으로 옮겨져야만 의미가 있다. 이제 다시 지역사회 공동체가 부활될 필요가 있다.

둘째,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의 하나로 가족친화마을을 제안한다. 베이비부머의 노후생활의 질에 가장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는 노인돌봄을 가족친화마을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 가족친화마을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성미산마을의 경우,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출발했지만 2009년부터 노인돌봄두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문치웅, 2011). 가족친화마을이라는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이 노인돌봄을 지원할 수 있음을 확인해주는 사례이다.

가족친화마을은 ‘다양한 가족들이 가족돌봄을 지역사회에서 공유할 수 있고, 모든 세대의 쾌적한 거주가 유지될 수 있는 공간과 관계를 구축해 가는 마을(차성란, 2010)’이라 정의된다. 하지만 주로 우리의 관심은 지금까지 자녀돌봄에 치우쳐 있었다. 모든 세대가 살기좋은 마을이 되기 위해 은퇴자들이 자녀돌봄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에서 노년기 돌봄을 지원받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돌봄이 가족친화마을에서 해결될 수 있다면 노인 삶의 질의 두 번째 요소인 여가생활시간 또는 임의사용시간에서의 사회적 관계를 통한 사회적 자본 축적은 일정 부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중고령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서지원, 2006)에서도 사회적 자본은 건강수준을 예측하는

중요한 자원이므로 지역사회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셋째, 베이비부머들은 돌보아야 할 노인복지의 대상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또는 성숙한 시민사회 조성을 담당할 수 있는 사회자본 형성의 주체로서 파악될 필요가 있다. 베이비붐 세대를 연령, 신체적 건강 등을 기준으로 사회적 활동이 가능한 수준에 따라 둘 또는 그 이상의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구분된 집단 중 사회적 활동이 가능한 가장 젊은 베이비부머의 경우 지역사회의 사회참여를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보육돌봄 인력으로 유급 또는 무급의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신체적 건강상태로 볼 때 사회참여가 어려운 집단은 세대내 교육, 정서 품앗이 활동을 한다거나 좀 더 연령이 높고 활동능력이 떨어지는 최고령 베이비부머들에게 노인돌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년기에 있는 베이비부머들이 단체활동, 자원봉사 등 공식, 비공식적 모임에 참여를 활발히 함으로써 긍정적 자아상, 노인 소외감 극복을 할 수 있음은 익히 잘 알려진 바다.

여기에 덧붙여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앞서 살펴본 대로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하여 노년기로 간주되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돌봄 대상만은 아니다. 신체적, 정신적, 기술적, 지적 자원을 사회관계망으로 연결시켜 사회적 자본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베이비붐 세대는 사회적 자본의 대안을 창출할 수 있는 주체로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일을 국가가 앞장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통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마지막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의 주요 자원인 규범(효, 노작가치, 느낌의 가치 등)바람직한 사회의 규범 창출로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우리의 전통적 가치가 지니는 소중한 가치를 재평가하고, 베이비붐 세대를 통해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것은 베이비 부머들의 노후생활을 긍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상적인 사회적 자본의 실현 가능성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첫째, 이들은 빈곤, 공동체, 아날로그를 경험한 세대이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할 수 있는 토대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전 세대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고, 경제적 부를 축적한 세대이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에 살고 있지만 가족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해 온 세대이다. 공동체 의식에 대한 기억을 가진 채, 산업사회의 중심에서 사회와 가족의 가치가 변화되어가는 것을 경험한 이들은 과거와 현재의 두 가지 특성의 장점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갖는 중간세대, 끼인 세대로서의 특징은 대안적 지역사회 자본 형성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본다.

다만 민주화를 향한 여러 사건을 경험하고 발전을 지켜봐 온 세대이나, 주민자치의 경험이 부족하다. NGO 또는 유사한 업무 관련기관에서 주민자치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 주민자치에 대한 체험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머릿속의 합리성과 현실의 냉혹함 사이에서 진정한 합리성이란 실제 작동할 수 있으면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탁석산, 2006). 베이비부머를 위한 사회적 자본 형성에 있어 이상을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규범을 제시했을 수도 있다.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이상(理想)이 머리라면 두 발은 현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합리성의 개념을 여기에 적용하고자 한다. 본고를 통해 제시한 내용들은 이상적인 수준에 있지만 그것이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으면서 모든 베이비부머들에게,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다음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국립국어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2) 권현정(2008). 베이비붐 세대의 문화자본이 문화활동에 미치는 영향 : 문화복지관점에서.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논문.
- 3) 김경식·이현철(2008). 가정내 사회적 자본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등교육연구*, 56(2), 143-168.
- 4) 김기현(2011).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생애분석. *노동리뷰*, 71권, 22-37.
- 5) 김범중·이홍직(2005). 미국 이주 한인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2005). *GRI 연구논총*, 13(1), 145-168.
- 6) 김상준(2004). 부르디외, 콜만, 베트남의 사회적 자본 개념 비판. *한국사회학*, 38(6), 63-95.
- 7) 김수림(2007). 도시가구의 외식비 지출분석.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8) 김영민(2006).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학적 특성.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9) 김영호(2006). 베이비붐 랠리. 이레미디어.
- 10) 김지경(2010).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적 부양 부담. *노동리뷰*, 6, 21-36.
- 11) 김현숙(2011). 부모의 인적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빈곤학생과 비빈곤 학생 차이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20, 123-150.
- 12) 나일주·임찬영·박소화(2008).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대비를 위한 정책 방향: 국가인적자원개발측면에서. *노인복지연구*, 42, 151-173.
- 13) 노병일·모선희(2007). 사회적 지지의 수준과 차원이 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7(1), 53-69.
- 14) 류석준·왕혜숙(2008). 사회자본 개념으로 재구성한 한국의 경제 발전. *한국이론사회학회. 사회와 이론 통권 12집*, 109-162.

- 15) 류석춘·최우영·왕혜숙(2005). 유교윤리와 한국 자본주의 정신-효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9(6), 52-86.
- 16) 문치웅(2011.5.10). 성미산 마을의 역사와 현재. <http://blog.daum.net/angels9404/15853856>.
- 17) 박현진·김영화(2010). 가정의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이 영어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잠재성장모형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0(4), 55-82.
- 18) 박희봉·이희창·전지용(2008). 가족 사회자본이 집단가치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현대사회와 행정, 18(3), 51-76.
- 19) 방하남·신동균·이성균·한준·김지경·신인철(2010).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생애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20) 서지원(2006). 중고령기 건강에 대한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의 효과. 대한가정학회지, 44(10), 133-144.
- 21) 서지원(2008). 노년기 경제적 복지를 위한 사회투자정책의 방향 : 인적자본 및 사회자본의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2), 31-55.
- 22) 성도경·박희봉·장철영(2004). 사회자본과 거버넌스 증진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대한정치학회보 12(1), 419-437.
- 23) 손민중·정호성·이민훈·박번순·박준·강성원·이은미·문외솔·이찬영(2010).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과급효과와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 24) 손정목(2004). 기획연재 : 도시 50년사 ; 한국의 아파트 70년의 역사(상). 도시문제, 39(428), 109-126.
- 25) 손희성(2011). 노년기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들의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석사논문.
- 26) 송양민(2010). 베이비붐 세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21세기 북스.
- 27) 여성가족재단 www.weoulwomen.or.kr.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
- 28) 우석진·이운수(2011). 한국 베이비 부머의 주관적 기대와 자산축적, 노동리뷰, 71, 10-21.
- 29) 이성균(2010). 베이비붐 세대의 건강과 노동능력. 노동리뷰, 6, 37-47.
- 30) 이소정(2011).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74, 11-18.
- 31) 이수옥(2010). 베이비부머 가구의 소득변화와 주택시장, 한국주택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20.
- 32) 이재혁(2007). 인적자본과 관계자본 그리고 경제성장 측면의 함의.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논문집.
- 33) 이재혁(2008).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 -한국 경제성장의 재해석-. 담론201, 11(3), 5-34.
- 34) 이종상(2007).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생활에 관한 연구 : 주거형태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 35) 이혜자·성명옥·신윤아(2003). 대도시 여성 노인의 정신건강과 사회인구학적 관련 변인 : 심리적 복지감과 우울감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22, 127-150.
- 36) 이홍직(2009) 노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 25(3), 25-42.
- 37) 임우석(2009). 사회적 자본과 노인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논문.
- 38) 전찬호(2011). 남성 사무직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전 경력개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39) 정경희(2011). 베이비붐 세대의 제 특성 및 복지욕구. 보건복지포럼, 174, 5-10.
- 40) 조희금·김경신·정민자·송혜림·이승미·성미애·이현아(2006). 건강가정론. 신정.

- 41) 차성란(2011). 주민주도적인 가족친화마을만들기를 위한 기관의 역할-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4), 77-100.
- 42) 최경석(2010). 직업선택 동기와 취업활동에 관한 연구. 일본근대학연구, 27권, 257-272.
- 43) 최두진·류영달·희인(2011). 2010년 정보문화 실태조사.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 44) 최미영(2008). 노인우울에 미치는 동네효과와 사회자본의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8권, 25-46.
- 45) 최재석(2009). 한국의 가족과 사회. 경인문화사.
- 46) 탁석산(2006). 대한민국 50대의 힘. 서울 : 랜덤하우스코리아.
- 47) 통계청(200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 48) 통계청(2010. 4. 13). 사회조사를 통해 본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보도자료). http://kostat.go.kr/po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download&bSeq=&aSeq=70430&ord=2 .
- 49) 허은정·김우성(2003). 베이비붐세대 가계와 X 세대 가계의 소비지출 및 저축, 소비문화연구, 6(3), 79-97.
- 50) Bourdieu, P.(1986). Forms of Capital in J. Richardson Eds. Handbook of Theory of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Westport, CT: Greenwood Press.
- 51) Bubloz, Margaret M.(2001). Family as Source, User, and Builder of Social Capital. Journal of Socio-Economics. 30, 129-131.
- 52) Coleman, James(1990). The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53) Fukuyama, Francis(1999). The Great Disruption. New York: Free Press.
- 54) Israel, G. D., Beaulieu, L. J., & Hartless, G.(2001). The Influence of Family and Community Social Capital on Educational achievement. Rural Sociology. 66(1), 43-68.
- 55) Krugman, Paul(1994). The Myth of Asia's Miracle. Foreign Affairs . Nov-Dec. 62-78.
- 56) Norris, Pippa(2002). Democratic Phoenix: Reinventing Political Activism.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57) Putnam, Robert(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58) Teachman, J. D., Paasch, K. & Carver, K.(1997). Social Capital and the Generation of Human Capital. Social Forces, 75(4), 1345-1359.
- 59) Tocqueville, Alexis de(1984). Democracy in America. Renewed by Richard D. Heffner.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A Division of Penguin Books.
- 60) Wright, J. P., Gullen, F. T. & Miller, J. T.(2001). Family Social Capital and Delinquent Involvement.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9, 1-9.

- 투 고 일 : 2011년 12월 27일
- 심 사 일 : 2012년 1월 10일
- 심사완료일 : 2012년 2월 6일